



김 건 수
 동산고등학교장

전통(傳統)과 미래(未來)가 있는 東山學園

공자께서 나이 70세를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음)라고 했습니다. 이는 어떤 판단과 행동도 사리에 어긋나지 않아 모범이 된다는 뜻으로 이 경지야말로 성인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산은 이제 70돌을 맞이하였습니다. 동산학원이 뜻을 두고 시행하는 모든 교육활동이 법도에 어긋남이 없고 타의 본보기가 되어 교육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경지가 되었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런 70주년은, 오늘의 동산이 있기까지 학교를 세우고 도우신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고, 동산을 거쳐 가신 많은 선배선생님들과 지금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발전시킨 훌륭한 졸업생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재학생들도 선배들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방문하여 집단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교생실습을 나와 학생들을 지도하신 분들 누구나 '동산고등학교 학생들은 착하다'는 말을 빼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동산의 터가 좋아서 그렇다'고 넌지시 빈말을 건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동산 교정의 아름다움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넓고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문을 들어서자마자 맑은 아침 공기 속에 열리는 넓은 운동장, 울창한 나무들과 아름다운 정원, 이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곳의 벤치들. 매일같이 이것들을 바라보며 자라는 학생들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학교 내의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등으로 어수선한 때에도 남의 나라 일 같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 학생들은 항상 착한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제시대에 학교를 세우신 선각자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학교를 세우고 넓은 운동장과 체육관을 만들어 학생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해 주신 덕분일 것입니다.

적선지가 필유여경 (積善之家 必有餘慶)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 는 말이 있습니다.

선배들이 닦아 놓은 길을 따라 동산학원은 세세연년 무궁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3개 학년을 합해도 10개 학급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매우 작았습니다. 그러나 동산의 교정을 거쳐 간 많은 동문들의 숨결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진취적인 기상은 세계 곳곳에 퍼져 동산의 발자취가 닿지 않은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24회 모강인 동문이 치안감으로 승진하여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22회 신두호 동문은 경무관으로 승진하는 등 경찰에서 한 해에 2명이나 승진해 동산의 위상을 높여주었습니다.

우리 동산고등학교는 2008년 학교 캐치프레이즈를 "동산의 소금, 인천의 명품, 세계의 리더가 되자"로 정하고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산에서 열심히 배워 고향인 인천을 사랑하며 세계의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여 다시 모교인 동산을 빛내는 훌륭한 인재로 자라날 것입니다.

인천의 중심이었던 중·동구에 위치한 우리 동산은 1980년대까지는 인천교육을 선도하는 우수한 학력을 자랑하며 성장해 왔으나,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등에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고 발전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학생 수도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적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삼기위해 송도국제자유구역으로의 이전에 온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가올 2010년경에는 새로운 동산의 모습으로 거듭나 개교 100주년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동산70년사'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총동창회 신희범 회장님, 김명훈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동창회 임원 여러분, 고등학교 최기형 교감선생님, 중학교 이선희 교감선생님을 비롯하여 원고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산의 무궁한 발전을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